

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

흠은길 따르라 의의 길을

H. E. Nichol

한국관악가공회 역

1. 흠은길 따르라 의의길 을 세계 만민이 의의길
2.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
3. 놀라운 이소식 알리 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
4. 고난길 헤치고 찾아 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

이길따라서 상-길 을 온 세계에 전하소서--만 백성이 나길길
길과 건리요 창-생 명네 창경을 부수고--다 따르라 화평왕
내 주예수를 보-내 신정 사랑의 하나님--만 백성이 따를길
모두 나와서 믿-어 라 온 세계가 이마침 내--이 건리에 살것네

Chord progression for the first system:

E B E B⁷ F[#]_m B⁷ E B/F# E/G#

Lyrics: 어둔 밤 지나서 동 토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

Chord progression for the second system:

B/A E/G# A⁴_{sus} A⁴_{dim} E/B G[#]/B# C[#]_m F[#]_m E/B B⁷ E

Lyrics: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 겠네 오 겠 네

Chord progression for the first system:

A D F^{#7} Bm B⁷ E E⁷

Lyrics: 1. 정 의 가 강 - 물 처 럼 평 화 가 들 - 불 처 럼
2. 눈 물 새 를 뿌 리 며 지 나 온 수 난 의 세 월

Chord progression for the second system:

A A⁷ D Dm A/E E⁷ A

Lyrics: 사 랑 이 햇 - 빛 처 럼 하 나 님 주 신 생 명 보 들 머
보 아 라 우 리 눈 앞 에 새 하 늘 이 - 활 작 열 린 다

Chord progression for the third system:

D A B⁷ E⁷

Lyrics: 희 년 을 향 해 함 께 가 는 길 주 의 약 속 곧 게 믿 으 며 일 곱

Chord progression for the fourth system:

A A⁷ D Dm A/E E⁷ A

Lyrics: 아 념 씩 일 곱 념 이 저 도 약 속 을 곧 게 믿 으 며

시편 119편 121-144

121 나는 당신의 결정과 정의를 따랐으니, ○ 억누르는 자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마소서. 122 당신의 종을 편들어 잘 되게 하시고 ○ 교만한 자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. 123 당신의 구원을 눈 빠지게 기다리오며, ○ 정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립니다. 124 당신 사랑으로 이 종을 대해 주시고 ○ 당신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소서. 125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오니, 나를 깨우쳐 주소서. ○ 당신의 언약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. 126 주여, 당신의 법을 사람들이 짓밟았으니 ○ 나서실 때가 되었습니다. 127 그리하여 나는 금보다도, 순금보다도 ○ 당신의 계명을 더 좋아하리이다. 128 또 당신의 법령을 어김없이 따르고, ○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하리이다. 129 당신의 언약이 너무나도 놀라와 ○ 이 몸은 성심껏 그것을 지키리이다. 130 당신 말씀 밝히시어 빛을 내시니, ○ 우둔한 자들도 손쉽게 깨닫습니다. 131 당신의 계명을 탐한 나머지 ○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입니다. 132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던 대로 ○ 나에게로 얼굴을 돌이키사 불쌍히 여기소서. 133 당신 약속에 힘을 얻어 곳곳이 걷게 하시고	○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. 134 사람들의 압박에서 이 몸 빼내 주소서. ○ 당신의 법령대로 살리이다. 135 당신의 종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시고 ○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. 136 사람들이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○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릅니다. 137 주여, 당신은 공정하시며 ○ 당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. 138 당신의 언약은 공정하여 ○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. 139 나의 원수들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○ 나의 정열이 이 몸을 사릅니다. 140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, ○ 나에게는 그 약속이 소중합니다. 141 나 비록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○ 당신의 법령들을 잊지 않으리이다. 142 당신의 정의는 영원한 정의, ○ 당신의 법은 언제나 진실됩니다. 143 고민과 억압에 짓눌려도 ○ 당신의 계명이 나를 기쁘게 하옵니다. 144 당신의 언약은 언제나 공정하시니 ○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을 살게 하소서. ◎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○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, 아멘.
---	---

복음서: 마태오(마태)복음 7:13-21

"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.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, 그 길이 널찍하여서,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.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, 그 길이 비좁아서,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." "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.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,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.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.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,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? 이와 같이,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,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. 좋은 나무가 나쁜	열매를 맺을 수 없고,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.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,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.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." "나더러 '주님, 주님'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,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.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. ○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. ●하느님께 감사합니다.
---	---